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遊山)체험의 양상과 의미

최 은 숙*

- I. 서론
- II. 텍스트 현황
- III. 유산의 동기와 여정의 특징
- IV. 청량산과 유산체험의 의미
 - 1. 미지의 경물, 인식 확장의 즐거움
 - 2. 순례의 대상, 존재 확인의 즐거움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청량산 유산(遊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의 존재양상 및 작품에 담긴 유산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다.

먼저 <청량산수가>, <청량산유산가>, <淸凉山유산록>을 통해 청량산을 소재로 한 가사작품의 작품양상을 살폈다. <청량산수가>를 다시 살핌으로써 이들을 모두 여성이라는 젠더적 시각으로 조명할 수 없음을 밝혔고,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淸凉山유산록>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유산의 동기와 양상, 의미를 도출하였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olive7007@hanmail.net

청량산 유산의 동기를 통해 이들에게 청량산은 응당 한번은 올라야 할 당위의 공간임을 알았다. 여기서 청량산은 여행이나 관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즐거운 순례의 과정임을 밝혔다. 또한 청량산 유산의 주요 여정은 연대사(연대암)와 청량사, 응진전으로 대표되는 절, 청량정사, 어풍대, 총명수, 김생굴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공간, 그리고 청량산 옥옥봉으로 상징되는 산봉우리였다. 이들 여정은 양반사대부 유산기와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다소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사작품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청량산의 장소성과 유산체험의 의미를 살폈다. 이는 가사작품에서 청량산을 경험하는 방식이면서 또한 유산체험을 통해 새롭게 새긴 의미이기도 하다. 가사작품에서 청량산은 순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청량산을 순례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 한편 청량산은 미지의 경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미지의 경물로서 청량산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인식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그래서 청량산 유산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청량산을 다시 되돌아보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가사짓기를 통해 그 즐거움을 다시 만끽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청량산 유산체험을 담은 가사작품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양반사대부의 유산기나 한시 등을 통해서만 조명되었던 청량산이라는 문화공간의 장소성 및 의미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본다.

◆ 주제어

청량산, 유산, 기행가사, 가사, 청양산유람가, 淸涼山유산록, 청양산수가, 퇴계 이황, 오가산, 청량정사, 총명수, 김생굴.

I. 서론

본고는 영남지역 기행가사 중 청량산 유산(遊山)을 제재로 한 가사작품¹⁾을 대상으로 유산체험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영남지역의 유산기(遊山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청량산을 새롭게 주목하면서 청량산 관련 문학 활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²⁾ 본고의 논의 또한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국문시가로 창작되었으면서 주로 가사 향유자들 사이에서 유통된 작품에 나타난 청량산과 유산의 의미는 더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청량산의 장소성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속 수행되기 때문이다.³⁾ 이런 의미에서 청량산 유산 체험의 양상과 청량산이라는 공간 및 문학적 모티프가 ‘가사짓기’라는 문화적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장소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유산체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량산 기행가사에 대해서는 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현황을 살펴거나 청량산 관련 시가문학의 전반을 살피는 연구에서 작품현황이 소개되거나⁴⁾, 규

1) 이러한 작품을 본 논문의 제목에서 ‘청량산 기행가사’라고 하였으나, 이는 범주화를 목적으로 지칭한 용어가 아니다. 청량산 유산을 모티프로 창작되고 향유된 가사라는 의미임을 밝혀둔다.

2)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1집, 퇴계학연구원, 2017.6, 39~73면.

정목주, 「淸涼山의 高山景行 이미지 形成動因과 그 원리-『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73~102면.

김종구, 「유산기에 나타난 독서와 유산의 상관성과 그 의미-지리산과 청량산 유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125~157면.

우웅순, 「淸涼山 遊山文學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변모 양상 : 周世鵬과 李滉의 作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425~446면.

3) 심승희 옮김·딴 크레스웰 지음,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그마프레스, 2012, 61면 참조.

4) 최은숙, 「영남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존재 양상과 의미」, 『어문학』 122집, 2013.12, 499~526면, 김기영, 「청량산의 시가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충청문화연구』1, 충

방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작품명이 언급된 정도이다.⁵⁾ 그러나 구체적인 작품현황 및 특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량산 기행가사의 작품현황 검토, 유산의 동기와 여정 등 유산체험의 양상, 그리고 청량산의 장소성과 유산체험의 의미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인에 의한 유산문화와 문학 향유 양상을 파악하고 청량산이라는 지역의 공간이 문학 활동을 통해 어떤 문화공간으로 의미화되는지를 구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II. 텍스트 현황

청량산 유람을 모티프로 한 가사 작품은 세 편이 존재한다. <청양산슈가>, <청양산유람가>, 그리고 <淸涼山유산록>이다. <청양산슈가>와 <청양산유람가>는 기존 연구에서 그 내용과 여정에 대해 소개한 바가 있고⁶⁾, <淸涼山유산록>은 그렇지 않다. 작품 이해의 차원에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텍스트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양산슈가>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서 권영철이 수집한 가사이다. 조동일의 모친이 필사한 <청양산슈가>가 존재하고⁷⁾, 본 연구자가 입수한 가사집⁸⁾에도 <청양산슈가> 전문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안동과 봉화 일대에 필사 및 전승이 두루 이루어진 작품이라 추정된다. <청양산슈가>는 권

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6, 103~124면.

5) 이정욱, 「내방가사 현장연구」, 역락, 2017, 80~93면.

6) 김기영, 「앞의 논문」, 2008, 103~124면.

7) 김기영, 「앞의 논문」, 2008, 103~104면.

8) 이정배 편, 「혜원 이원하 여사 가사집」,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자제분들이 여사의 생전 창작 및 필사 작품을 현대역하여 편집한 가사집이다. 이 작품의 말미에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을 베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작인지 필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원하 여사의 태호가 도산택이고 고향이 안동이라 하므로 안동지역에서 전승 필사된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작품 내용은 권영철<청양산슈가>와 동일하다.

영철과 김기영 모두 여성작으로 추정하고 있으나⁹⁾, 어조와 표현 등에서 여성이 지은 작품인 <청양산유람가> 및 <淸涼山유산곡>과 그 질감이 상이하다. 더욱이 본 연구자가 수집한 가사집에 ‘아버지가 지은 것을 베꼈다.’라는 언급을 고려할 때, 남성 작자가 지었거나 혹은 남성들에게도 향유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양산슈가>의 내용 중 ‘관자오늬 동자늬칠 망혜죽장 지헿헿여 십이봉만 츠즈가니’라는 구절은 이 가사의 창작자가 남성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청량산 유산 관련 기행가사들이 모두 여성작이라는 기존의 추정을 다시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¹⁰⁾ 따라서 청량산 기행가사를 젠더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¹¹⁾

<청양산슈가>는 청량산의 문화적 의미와 풍속적 위치, 청량산까지의 노정, 금표정과 축융봉 유람, 외청양 유람, 내청양 유람, 재유람 다짐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전언과 선조에 대한 존모지심을 드러내는 등 흥취의 전언에 조화로움을 꾀하고자 한 秀作으로 평가받고 있다.¹²⁾

<청양산유람가>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북촌에서 수집된 것으로, 권영철의 『규방가사』에 수록되어 있다. 10여 명 정도의 부인들의 청량산 유람을 기록한 작품이다. ‘출발, 청량사와 청양정사 등 유람, 외청량 유람, 귀가’의 과정과 감상을 표현하였다. <청양산슈가>에 비해 여성들의 산수 유람에의 기대와 흥취, 의미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어법과 내용 구성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여성가사이다.

9) 권영철은 부녀자들이 선조 유택이 있는 청량산에 올라 산야와 푸른 낙동강을 보고 느낀 감동을 읊은 것으로 보았고(권영철, 『규방가사』, 형설출판사, 1986, 155면), 김기영은 남성이 지은 가사의 향수에 익숙하고 또 유가적 소양이 있는 여성 작자가 남성적 표현과 흥취를 의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기영, 「앞의 논문」, 2008, 114면)고 하여 역시 여성작으로 보고 있다.

10) <청양산슈가>의 작자를 여성으로 본 것은 필자의 기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11) <청양산슈가>가 남성작이므로 청량산기행가사 안에서 남성작과 여성작의 차별성도 논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본고는 유산기나 한시와의 차별성에 먼저 초점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

12) 김기영, 「앞의 논문」, 2008, 111~113면 참조.

〈淸涼山유산록〉은 봉화금씨 성재과 매정택 소장 가사로서¹³⁾, 여성 작자가 근친 와서 친정 어르신들과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고 그 여정과 감상을 기록한 작품이다. ‘잇썩가 어늬썩요 병오중추 망난이르 민손의 황국화는 물식이 춘른흐다’라는 구절로 보아 유람 시기는 병오년 가을이다. 병오년이라는 단서 및 내용과 표기체계 등을 주목할 때, 1846년 혹은 1906년 작품으로 추정된다. 1846년 혹은 1906년까지는 옛 선비들에 의해서도 청량산 유람록이 여전히 창작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공시적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출발에서부터 청량산까지의 여정, 청량정사, 각 봉우리 구경, 연대사, 외청양, 하산의 여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여정에 따른 견문과 감상이 풍부하고 대상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다. 둘다 여성작의 가사작품이지만 〈청양산유람가〉가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문법에 기울어져 있다면, 〈淸涼山유산록〉은 문중 중심의 유람¹⁴⁾에 치중한 작품이어서 변별성이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여성들의 청량산 유람이 통시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청량산을 유람하고 지은 가사작품은 남성적 어법 및 남성들 사이에서도 향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양산슈가〉, 여성들의 산수 유람에의 흥취를 담고 있는 화전가류 가사의 놀이형태를 담고 있는 〈청량산유람가〉, 근친을 통한 문중 중심의 유람 체험을 담고 있는 〈淸涼山유산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양반 사대부 중심의 청량산 유산기와 비교되면서도 서로 간에 창작자의 성별, 창작시기 등의 자질을 토대로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3) 현재 원본이 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14) 문중중심의 유람이란 문중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유람 및 놀이를 말한다.

III. 유산(遊山)의 동기와 여정의 특징

다음으로 작품에 나타난 유산 체험의 양상을 유산의 동기와 여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청량산 기행가사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되 가야산과 주왕산 등 다른 기행가사 및 양반사대부의 유산기와 견주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가사작품에 나타난 청량산 유산체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량산 유산과 관련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설명은 가야산과 주왕산을 유람하고 쓴 다른 가사 작품들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청량산유람가>를 제외한다하더라도 <청량산유람가>나 <靑涼山유산녹>은 여성들의 기행가사인데, 여타의 여성 기행 가사작품과 유산의 동기 및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산을 다룬 가사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유람의 동기는 규중에 갇힌 여자로서 평소 바깥출입을 할 수 없고 집안일에만 힘써야 하는 신세 한탄이다. 그래서 산수유람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성격이 크다. 화전가류 가사가 그러하고 주왕산¹⁵⁾, 가야산¹⁶⁾을 유람하고 쓴 가사작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청량산 기행가사의 유산 동기는 이들과 차별적이다.

어와 벗님네요 우리말삼 들어보소 몇달두고 물은길이 멀기도 하온지라 삼

15) 청송에 주왕산은 조선팔경 하나로 경북에 자랑이요 청송에 행복이라 한평에 삼십리로 자동차 교통종다 사시에 류람객이 낙엽부절 하건마는 우리의 여자습관으로 규중에 침묵해야 한류람 못한것이 평생에 여한이라 전생의 무삼죄로 여자몸 되엇든고 경오년 사월달은 우리일행 모집되여 억만근심 하마하고 주왕류람 가게되니 슬프다 우리단체 구경이 느것구나 <유왕류람가>,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http://www.krpia.co.kr/>)』, 이하 작품내용은 본 출전을 참조함.

16) 소실금풍(蕭瑟金風) 침선방(針線房)에 잠흔정 편이자며 만화방창(萬化方暢) 꽃시절에 정점풍욕(曾點風浴) 하야밧소 차호(嗟呼)라 여자소임(女子所任) 가지가지 심정(心曾)나네 세월(歲月)이 약유파(若流波)라 녹빈홍안(綠鬢紅顏)언제던고 소소빈발(蕭蕭鬢髮)헛뿌도다 제부제야(諸婦諸兒) 현철(賢哲)하야 치산고역(治産苦役) 막겨시니 함니농손(含飴弄孫) 우리들은 마황후(馬皇后)의 신세(身世)로다 <희인사유람가>

사월 긴긴해에 해뜰무렵 떠난길이 장장춘일 다보나고 어두운 초경때에 집을 차차 오는지라 그사이 자미고통 난났치 알월되니 잊지말고 들어보소¹⁷⁾

연화괴득 탈거후 후 신선의 탁적호와/ 삼천갑죽 동방속도 요수지한 이셔스니/ 출우명시 흥온후의 보국치민 일습아서/ 유명만세 일흠전교 강호의 방적하여/ 인싱빅년 석화광음 미료지탄 이섯거든/ 흠물며 녀즈몸미 심규의 싱장하여/ 일싱고락 직타인은 네필종부 디륜이르/ 승순군고 무위부즈 침선방적 봉제접빈/ 그중의 다병하면 일싱고락 여가업서/ 손슈간의 명구승지 유완을 괴필이라/ 년쇼다병 노의몸이 희동조선 편쇼읍이/ 퇴도선싱 후예로서 단스팔경 이별하고/ 하슈원앙 지은후의 죠병츠로 근친와서/ 쇼쇠헌 빅운촌의 위석도일 은히더니/ 만구명구 선조유측 청난슨이 지척이르/ 문중시직 회즈하고 남너노소 흠모하니/ 닉비록 여즈르도 흥번구경 원닐너¹⁸⁾

유람의 동기는 대체로 작품의 서두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량산 유람가>의 서두에서 청량산 유람에의 동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미 청량산을 다녀왔고, 하루 동안의 여정을 낱낱이 보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뿐이다. <淸涼山유산록>의 경우는 <유왕류람가>와 <희인사유람가>처럼 여성으로서의 처지와 관련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자로서의 한탄이나 보상차원의 유람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일단 강산구경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쉬운 일이 아니라 전제한다.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도 산수를 즐기 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세상에 나와 이름을 떨친 후에야 자연에 거할 수 있었듯이 여자의 몸으로 집안일을 다하고 나면 여유가 없어 산수의 좋은 경치를 다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량산을 유람하게 된 동기는 퇴계선생의 후예로 선조의 산인 청량산이 가까이 있으니 유람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어머니와 집안의 숙모가 앞장서고 동행하니 청량산 유람은 자연스러운 여정이 된다.

앞서 화전가류나 다른 산을 모티프로 하는 작품들에서 유산의 동기가 주

17) <청량산유람가>

18) <淸涼山유산록>

로 여성이 지닌 상대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여성 스스로가 주는 보상의 의미가 강했음에 비해 청량산 기행가사에서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나 한탄은 강조되지 않는다. 여성들에게도 청량산은 응당 한번은 올라야 할 당위의 공간이다. 그것은 퇴계선생이라는 선조의 산이기 때문이고 고향 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사 향유자들에게 청량산이 여행이나 관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순례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양반사대부 중심의 청량산 유람이 지닌 동기와 매우 닮아있다. 당연히 올라야 하는, 한번은 가야할 곳이 바로 청량산이었던 것이다.

청량산 늑늑봉은 우리선도 장구쇠라/ 류로지향 명승지에 류부즈의 무이로
다/ 일월산이 유산이오 낙동강이 형되로다/ 틱씩산이 공읍세오 녕지산이 안
되로다/ 구경가즈 구경가즈 성현츄축 구경가즈¹⁹⁾

역시 청량산 유람의 동기는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청량산은 선조의 산이고, 주자의 무이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할 곳이다. 따라서 <청량산수가>에서 유람의 동기에 대한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순례적 동기가 양반사대부들의 청량산 유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양반사대부들의 청량산 유산 동기가 ‘주자의 무이산’이 지닌 의미와 더 가깝다면 청량산 기행가사의 유산은 ‘선조의 산’이 지닌 의미와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청량산유람가>에서 청양정사를 ‘퇴계할범 강당’으로 지칭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²¹⁾

결국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의 동기는 자신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산인 청량산을 순례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청량산 유산의 주된 동기는 가사 향유자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

19) <청량산수가>

20)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량산수가>가 남성적 어법과 남성들에게 향유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었을 때 이 작품에서 여성적 한계나 한탄은 불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21) 이는 청량산이 동경의 공간이자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최은숙, 「앞의 논문」, 2013, 512~514면 참조.

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의 동기가 잘 드러난 출발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할까. <청양산슈가>에서 청량산 유산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풍경의 교차를 통해 드러난다.

훈구빅 드러가니 강선암 적노히고/ 쏘훈구빅 드러가니 고소디가 차아흐다
/ 빅석촌을 나가니 만장절벽 학소티라/ 선향이 지척이딴 벼수가 지음쳤다/ 주
즈를 불너닉야 빅씨여라 밋비가즈/ 유산흐즈 이경영이 몇히만의 오늘이라/
청량산 산신령이 날을보고 반기는 듯/ 관이일성 다건너서 주양가의 비를미고
/ 빅구와 밋서히고 도화를 짜라가서/ 금표정 드러서니 연화동정 여기로다/벽
계는 존존히고 빅운이 심심흔디/ 유흥이 도도흐야 차례차례 올라가니 22)

유산의 즐거움 이전에 선유(船遊)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강물 굽이굽이마다 새로운 풍경이 교차하여 나타나며 예상치 못했던 풍경은 선경(仙境)이 되고, 이는 청량산 산신령의 선물인 듯하다. 그래서 유산에의 흥은 더욱 고조되고 충만해진다. 이러한 분위기는 회정 부분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청량산 사계절의 좋은 풍경을 모두 즐기겠다는 당당한 의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²³⁾

<청량산유람가>는 유산의 즐거움을 동류들과의 만남과 이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²⁴⁾ 이러한 표현은 화전가계 가사나 근대 이후 단체 관광의 형태를 띤 여성기행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유산의 흥취를 더욱 돋우는 역할을 한다.

이상으로 여정의 동기와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정의 동기

22) <청양산슈가>

23) '봄만나 금상첨화 봉늬방장 어데런고 즈약선즈 거의만나 요지연을 빅설흔 듯 구름길히 뉘알넌고 상빙우설 늴름중의 보만절은 네가좃타 이갓흔 도흔경을 혼번보고 다시 말나 동풍이월 연녹수와 녹음방초 승화시와 황국단풍 경감시와 한천설월 교결시에 어와 밋넬닉야 다시와볼가 흐노라.' <청양산슈가>

24) '뭇뚝을 올라서니 화몽화 비치난데 안개같이 모여들어 일석에서 회소담락 면면이 거동보소 이장도 찰란하고 준수한 민물들이 뭇뚝을 치장하네 십여명에 거동보소 점심보작 마즈들고 밋차골 험난산길 지체업시 올라가네' <청양산유람가>

에서 청량산 유산은 가문의 산으로서 청량산을 순례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산의 주된 동기는 가사 향유자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확인은 엄숙하지 않다. 분위기는 들뜨고 즐겁다. 새로운 여정의 교차적 제시는 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기쁨은 다름 아닌 존재를 얻어내는 놀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청량산 유산의 여정을 확인해보자. 먼저 세 작품별 구체적인 여정과 일정,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일행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여정	일행
청량산 슈가	탁영당-(갈선대, 단사구곡)-삼송전-월명담-강선암-백석촌-학소대-금표정-충늑봉-(학가산, 부용봉, 죽령, 공민산성)-연대암-어풍대-풍혈대-총명수-(자란봉, 경일봉, 탁필봉)-초은대-김생굴-(향노봉, 옥녀봉, 탁필봉, 연적봉, 연화봉, 장인봉)-청양사-청양정사-회정 없음, 하루 여정	어른남자 5~6명 아이 6~7명 총 11~13명
淸凉山 유산록	망양포-오령-(월명담, 일출봉, 도우단, 남산)-고산-총암산-광석점-청양정사-봉구경(연화봉, 금자탑, 탁필봉, 연적봉, 장인봉, 옥녀봉, 경일봉, 향노봉, 옥소봉, 자란봉, 의상봉)-봉구경(축늑봉, 인왕산성)-연대사-어풍대, 김생굴, 총명수-풍혈대-절-회정, 이틀 여정	부녀자 3명
청량산 유람가	못둑-원촌재-울무재-고산정-청량산백사장-청양사-청양정사-외청양-오산당-청양사-김생굴-하산-못둑, 하루여정	부녀자 10 여명

세 작품의 여정을 정리해 본 결과, 이들 이내의 약 10여 명 정도의 일행과 함께 하는 여정이다. 청량산까지의 여정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였고, 월명담과 고산정에 이르는 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량산에서의 주요 여정인 연대사, 어풍대, 풍혈대, 김생굴, 청량사, 청량

정사는 직접 경험하고, 청량산의 주요 봉우리는 주로 높은 곳에서 두루 구경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로 언급된 봉우리는 축융봉, 자란봉, 경일봉, 탁필봉, 향로봉, 옥녀봉, 연적봉, 연화봉, 장인봉 등이다. 이러한 여정은 전통적으로 청량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인식되어 왔다. 이세택(1716~1777)이 작성한 것을 중수한 이이순(1754~1832)의 『청량지』에서도 이들 공간은 청량산을 대표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포함되어 있다.²⁵⁾ 양반사대부들의 청량산 유산기에서도 이들은 마찬가지이다.²⁶⁾ 따라서 청량산 기행가사에서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청량산 기행의 여정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청량산 봉우리와 관련한 여정을 살펴보자. 청량산 봉우리는 직접 오른 경우는 드물다.²⁷⁾ 봉우리를 두루 오르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청량산이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세가 매우 험하기 때문이고²⁸⁾,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모두를 직접 오르지는 않았으나 이들 봉우리가 가진 의미는 가볍지 않다. 청량산을 대표하는 옥육봉, 즉 봉우리는 청량산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 작품에 나타난 봉우리에 대한 관심은 다소 차이가 있다. <청양산유가>와 <淸凉山유산록>이 청량산의 각 봉우리를 감상하는 것을 중요한 여정의 한 과정으로 할애하고 있으며 각각의 봉우리에 대한 묘사에 집중한 반면, <청량산유산가>의 경우는 각각의 봉우리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청량산이 지니는 공간 이미지의 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25) 전병철, 「淸凉志를 통해 본 퇴계 이황과 청량산」, 『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315~316면.

26) 장병관 외, 「청량산 유산기(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선비의 산 경관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 91~93면.

27) <청량산유산가>에서도 이들 봉우리는 경관의 형상 묘사가 주를 이룬다.

28) ‘손노가 위험키로 만월암을 못가보니 쇠린흔 유곡급화 이번길외 흠스로드’
‘낙낙히 솟은석벽 위험하기 작이엿다 길이라고 낫는 것은 방위 밀을 깎아는 듯<중략>온길을 생각하니 철리같이 생각되고 갈길을 생각하나 만리길이 될것갈네<淸凉山유산록>

부분이라 주목된다.²⁹⁾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이들이 직접 체험한 여정에 대해 살펴보자. 세 작품 모두 안동쪽에서 출발하였고, 연대암 및 청량사, 응진전, 청량정사, 어풍대, 총명수, 김생굴을 거치는 여정을 거쳤다. <청양산슈가>는 축융봉을 직접 오른 후 연대사쪽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여정을 체험하는 비교적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량산유람가>는 청양사와 청량정사로 여정이 집중되어 다른 작품에 비해 여정 자체는 짧지만 응진전을 거치면서 출발과 귀로의 여정이 중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직접 체험한 여정을 양반사대부 유산기와 비교해 보자. 양반사대부의 청량산 유산이 퇴계선생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 청량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가운데에 도산서원과 고산정 등을 반드시 거치는 데 비해, 가사작품에서는 퇴계선생에 대한 순례는 청량산 안에 있는 청량정사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퇴계선생에 대한 함의는 서로 다른데 전자가 청량산을 유가적 선산(仙山)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비해 후자는 가문이라는 공동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유산의 동기에서도 확인한 바이다.

또한 청량산에서의 여정과 방문지를 기준으로 볼 때, 양반사대부의 경우 연대사, 치원암과 총명수, 김생굴을 가장 많이 들른 것으로 확인된다. 연대사는 현재 청량사 자리에 있는 절로 추정되는데, 청량산 유산의 숙소 기능을 주로 하였다. 그밖에 치원암, 총명수, 김생굴은 신라시대 최치원과 김생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하는 곳으로 사대부들의 ‘공부하기’와 관련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다.

청량산 기행가사에서도 이들 여정은 여전히 체험의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사작품에 제시된 여정과 양반사대부 유산기의 여정은 차이를 보인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여정의 변화와 향유자들의 관심사에 따른 여정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연대사와 청량정사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치원암이다. 연대사는 <청양산슈가>와 <淸凉山

29)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더 고찰하기로 한다.

유산록>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량산유람가>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양산유람가> 창작 시에는 연대사나 만월암 등이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량산유람가>에는 청량사와 응진전이 연대사나 만월암을 대체하는 주요 여정으로 들어가 있다. 다음은 향유자들의 관심사에 따른 여정의 변화이다. 대표적인 곳이 치원암이다. 치원암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한 여정인데, 특히 퇴계선생의 제명이 남아있어 선생을 추모하는 선비들은 반드시 방문한 곳이기도 했다.³⁰⁾ 그러나 가사작품에서 치원암에 대한 언급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김생굴과 총명수는 중요한 여정으로 들어 있다. 김생굴과 총명수는 양반사대부가 지향했던 유가적 의미를 탈각하더라도 가사 향유자들에게 새로운 의미화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치원암과 총명수 둘 다 거리가 가깝고 최치원이라는 동일인물과 연결되는 곳이지만 가사작품에서는 총명수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흥미롭다.

앞서 살핀 바를 참고할 때 청량산 기행가사의 주요 여정은 연대사(연대암)와 청량사, 응진전, 청량정사, 어풍대, 총명수, 김생굴 등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가사작품마다 실제 여정의 순서에는 일정 및 창작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반사대부들의 청량산 유산과 비교할 때, 시대적 차이 및 향유자들의 관심에 따라 여정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IV. 청량산과 유산체험의 의미

청량산 유산의 주요 공간은 청량산 봉우리, 연대사 등의 절, 그리고 청량정사 등의 역사적 공간이다. 가사작품에 나타난 견문과 감상, 그리고 표현방식 등을 통해 청량산이 어떤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지 살피고, 청량산 유산이 가사 향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0) 정치영, 『사대부, 산수여행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220~221면.

1. 미지의 경물, 인식 확장의 즐거움

청량산 옥육봉은 자연경관으로서 청량산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닌 여정이다. 특히 유산기에서 옥육봉은 양반사대부를 중심으로 청량산의 이미지를 ‘高山景行’으로 만드는³¹⁾ 중요한 대상이었다. 가사작품에서는 옥육봉으로 대표되는 산봉우리는 어떻게 이미지화되며, 이에 대한 체험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가) 발근날의 등척하여 봉만구경 흐즈서르/ 추풍이 청속흔디 금수단중 만첩병봉/ 면면이 괴관이오 곳곳 선경이라/ 풍녕국 이전터의 전진이 요망하다/ 심신이 상납하여 후면을 올라가니/ 녹녹봉 조흔경을 일낙진등 여기로다/ 동정호 군슨인들 여게서 더홀손야/ 무협슨 십이봉은 이에서 다를순야/ 혼봉어리 연화봉은 틱을옥정 소스있고/ 용지불갈 금즈탑은 적누지공 뉘파있고/ 탁질봉과 연적봉은 전문형이 완연하고/ 중인봉과 옥여봉은 선풍이 늑늑하고/ 소명흔 경일봉은 부상이 빈최잇고/ 말근기운 향노봉은 즈연이 둘너잇고/ 한줄기 옥소봉은 농옥선녀 좇최런ㄱ/ 계명슨 쥬야월의 장즈방외 좇최런ㄱ/ 자관봉과 의승봉은 선인이 쇼식업다/ 최고운과 의승디스논 이곳의 선회하고/ 선풍이 묘연흔디 봉만나 적막하다³²⁾

(나) 은하슈 씨러기기 연연흔 향노봉의 즈연이 나단말가/ 정정흔 옥녀봉이 쫓홀쫓고 섯단말가/ 탁필봉이 뒤히잇고 연적봉이 압히잇다/ 옥경으로 소삿는가 연화봉이 화려하고/ 닻장인봉 외장인봉 강양의 언건흔니/ 승평일월 요순세에 하조하고 가려는가/ 십이봉 올라본후 획연장쇼 다시보니/ 일흠익산 천만봉이 괴형괴형 가관이라/ 신선인듯 귀신인듯 붓쳐닷 사람인 듯/ 식갓고 즈승갓고 꽃딴갓고 나발갓고/ 썩죽흔봉 아롬흔봉 모논봉 둥그런봉/ 큰봉 즈근봉 나른봉 뉘흔봉 봉마다 각각형상/ 어이다 괴록흔리 일산을 다보라니³³⁾

(가)는 <淸涼山유산록>의 일부이고, (나)는 <청양산수가>의 일부이다. 청

31) 정목주, 「앞의 논문」, 2017, 73~102면 참조.

32) <淸涼山유산록>

33) <청양산수가>

량산 옥육봉을 중심으로 각 봉우리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작품 모두 청량산을 선산(仙山)으로서 이미지화하고 있다. <淸涼山유산록>의 경우 청량산 봉우리의 풍경을 선경, 선풍, 선인으로 일컫고 있으며, <청양산수가>의 경우도 ‘옥경’이라 언급하며 다시 돌아보는 산세의 모습을 신비화하고 있다. 그런데 묘사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淸涼山유산록>의 경우는 각각의 봉우리가 지닌 이름의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하였고, <청양산수가>는 탁필봉과 연적봉, 연화봉, 장인봉 등 중요한 몇 개만 그 이름을 언급할 뿐 두루 나타나는 봉우리의 각기 다른 형상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淸涼山유산록>이 ‘청량산 옥육봉’이 지닌 전통적 상징성에 가까이 있다면 <청양산수가>는 감각적 이미지에 좀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여전히 청량산 옥육봉이 중요한 여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청량산유람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청양산 막바지를 지향
업시 걸어가니/ 서늘한 수
목빛에 쉬어가며 올라가
니/ 산세도 험한지라 길이
라고 발을노니/ 두발놓기
어려우며 한발자국 올라
가면/ 두발자국 내려가니
차자가기 극난하다 /형형
색색 가진새가 지지배배
울어대고/ 규중에 못찼더
니 온갖만물 괴의하다³⁴⁾



<청량사>

<청량산유람가>에서는 청량산 옥육봉의 상징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각 봉우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다만 청량산은 산세가 험하여 오르

34) <청량산유람가>

기 힘들지만 규중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 주는 기이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양반사대부들의 유산기에서 공유되었던 성산의 이미지와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가사작품에 나타난 육육봉은 청량산을 신비하고 기이한 산으로서 이미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육육봉의 이름을 되새기거나 기이한 모양을 묘사하는 방식과 오르기 힘들지만 기이한 만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표현된다.

다음은 연대사와 연대암, 청량산 등으로 대표되는 절과 관련한 여정이다. 연대사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데, <청양산슈가>와 <淸涼山유산록>에서는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청량산슈가>에서는 연대사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대신 청량사가 중요한 여정으로 들어 있다.³⁵⁾



<청량사>

(가) 신선의 도술인가/ 조화의 조취
런가/ 괴물도 가지가지/ 별천지 여기로
다/ 오빅 나안전의/ 저부터 거동보소/
웃는부터 우는부터/ 학탄부터 범탄부터/
음글는 늙은부터/ 칙보는 동자부터/
칼집고 썰는거동/ 주창이 네아니냐/
방마치 둘너메닉/ 창히닉스 네왔고나/
그나마 모단거동/ 괴기하고 괴피하다/
범당우회 걸닌동서/ 기벽후로 위티하
다/ 한사람도 움즈기고/ 천만인도 그만

35) 연대사와 청량사는 청량산을 대표하는 절이다. 그런데 <청양산슈가>와 <淸涼山유산록>에서는 연대사, 연대암이라는 명칭만 언급되고 청량사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청량산유람가>에는 청량사만 언급되고 연대사, 연대암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연대사와 청량사가 여러 문헌에서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 연대사와 청량사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명으로 보기도 하고, 유리보전과 탑이 있는 곳이 연대사이고, 외청양 즉 응진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암자를 아우르는 절을 청량사로 보기도 한다. 현재에는 연대사는 없어지고 청량사라는 명칭만 있다.

이라³⁶⁾

(나) 종적을 가드듬어 연디스랄 구경홀식/ 부녀의 절구경이 더구느 춤남으
오/ 유린보전 드러ㄴ니 저부터 거동바라/ 금의랄 썰쳐입고 인물도 씩씩하다/
스람보고 말홀드시 빙긋이 옥슬다시/미련코 걸썬모양 유복고 묘흔모양/칭기
집고 안진모양 읊히고 선난모양/그중의 동즈부처 궁근코 절묘하다/시쑤쑤고
섯는거슨 풍월길을 기드리니/손우히 밧든칙은 팔만중경 초권이나/흙적이에
다문실과 서왕모의 본도런냐/좌우에 둘러보니 단청도 능난하고/그림도 휘향
하고 공녀도 그지업다/석아열의 패불피는 길이도 평중히라/왕불압히 달닌경
외 소리라도 청원하다³⁷⁾

(다) 말만들은 청양사야 고통끝에 들어서니/ 공기도 좋커니와 법당도 화려
하다/ 취성객들 뒤을따라 법당안을 들어가니/ 수만은 부처들이 칼과창을 마
즈들고 내려칠듯 하것만은/ 정신을 다시차려 세세이 구경하니/ 말만들은 청
양사가 상상과도 판판일네 /절이라곤 처음보나 이만큼 장치된줄 생각조차 못
하였네/³⁸⁾

청량산 기행가사에서 ‘절’이라는 여정은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 있다. ‘신선의 도술인가 조화의 조취인가 괴물도 가지가지 별천지 여기로다’, ‘말만들은 청양사가 상상과도 판판일네 /절이라곤 처음보나 이만큼 장치된줄 생각조차 못하였네’ 등을 통해 연대사나 청량사가 새롭고 놀라운 경험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절의 역사적 유래나 건물의 전체적 경관보다는 부처의 다양한 모습을 주목하고 이를 감각적 묘사의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사 향유자들에게 청량산이 새로운 인식의 확장을 경험해 주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의 대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관찰한 것을 차례차례 가사작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미있는 체험이다.

36) <청양산슈가>

37) <淸涼山유산록>

38) <청량산유람가>

이로써 절구경은 가사 창작자들에게 청량산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정물로 그려낸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은 미지의 대상을 꼼꼼히 살펴보는 흥미와 재미를 만끽하는 경험 확장의 계기로서 의미를 지닌다.

2. 순례의 대상, 존재 확인의 즐거움

양반사대부들은 청량산을 동경하는 성산(聖山)으로 여겼다.³⁹⁾ 퇴계선생은 청량산에서 주자를 상기하였고, 이후 양반사대부들은 청량산을 퇴계선생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청량산은 순례의 장소였다.

가사향유자들에게도 청량산은 순례의 장소였다. 그들에게도 역시 청량산은 퇴계선생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적 의미를 좀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청량산의 순례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여정은 사실 청량산 육육봉이다. 청량산 육육봉은 일찍이 주자의 무이산과 병치되는 상징성을 지녔고, 퇴계선생의 오가산을 상징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청량산 기행가사에서도 ‘청량산 녹록봉은 우리선도 장구쇠라 추로지향 명승지에 주류즈의 무이로다’⁴⁰⁾ 라는 구절처럼 그것이 지닌 상징성은 여전하다. 그러나 실제 청량산 기행가사에서 육육봉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험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녔던 상징성은 가사작품에서는 청량정사로 대체된다.

청량정사는 퇴계선생이 청량산에 유산(遊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후학들이 의논하여 1832년(순조 32)에 건립한 곳이다. 이후 청량정사는 선생의 뜻을 기리는 많은 후학들에게 학문과 수양의 장소가 되었으므로, 그 자체가 퇴계를 상상하고 기릴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데 가사향유자들에게 청량정사는 새로운 장소가 된다.

39) “尋幽越潛壑 歷險穿重嶺 無力足力煩 且喜心期永 此山如高人 獨立懷介耿”, <遊山書事十二首-登山>, 『退溪全書』 권2.

40) <청량산슈가>

(가) 간신이 올라가니/ 강혹쇼가 여기로다/ 심신이 정제혀여/ 유정문 도라
가니/청량정스 오산당은/ 현판이 촌란하고/이덧흐만손심쳐/ 정각도평결흐다
/독서흐난쇼년셔싱/ 일시에 영접흐니/천만디 우리집이/ 중늬중균 주인이리
오/표표흐 옹흔씨는/ 광능족쵸 제습즈르/빅슈즈친 츠즈가니/ 모즈환정 오죽
흐리⁴¹⁾

(나) 퇴계할범 강당으로 쉬여가며 차자드니/ 다리도 아프거니 마루끝에 걸
터안자/ 사방을 둘러보니 풍파에 시달리어/ 허술하기 짝이업다/ 세롭기도 하
려니와 무관심치 안으리라 <중략>

오든길을 다시거쳐 오산당 올라안자/ 고금을 상상하니 높으신 우리선조/오
선당 세글자로 옛자취는 남아있네/ 이만회 도라나서 섭섭함을 금할손가⁴²⁾

(가)<淸涼山유산녹>, (나)<청량산유람가> 모두 청량정사는 중요한 여정이
고, 자세히 다루어진다. (나)의 <청량산유람가>에서는 회정의 과정에서 다시
청량정사를 둘러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청량정사는 가문
을 상상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유산의 양상이나 표기체계 등을 통해 볼 때
두 가사의 창작시기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전자에서 청량정사는 건물 자
체가 화려하고 크게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은 장차 가문을 이어나갈 집
안의 어린 서생들이 글을 읽는 장소이기도 하다. 어린 서생들은 후대에도 가
문의 위대함을 면면히 이어나갈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흐뜻한 화자의 모습은 가문에의 변영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청
량정사는 성리학의 거두로서 퇴계선생을 흠모하는 순례가 아닌 가문의 근원
을 확인하고 면면히 이어질 가문의 명맥을 상상하는 곳이라는 새로운 의미
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청량정사는 순례의 대상이면서, 가문의 존재와 화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⁴³⁾ 그러나 청량정사의 화
려함과 활기는 (나)의 <청량산유람가>에 오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풍파

41) <淸涼山유산녹>

42) <청량산유람가>

43) 최은숙, 「앞의 논문」, 2013, 512~514 참조.

에 시달리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탄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화자는 그 모습에서 가문의 쇠락을 읽어내는 대신 가문의 부흥을 다짐하고, 높으신 선조의 옛 자취를 그려낸다. 여전히 청량정사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장소, 높은 가문을 상상하는 장소가 된다. 그러한 가문 안에서 화자는 ‘무관심치 않으리라’ 다짐한다. 가문의 영화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욕심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다짐과 욕심은 화자를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완물상지 되을세르/ 산슈의 취흔ㅁ암/ 현허고상 경계로다/도의르 구허라
면/ 강학소로 츠즈가즈/ 빅녹동이 어디미냐/ 추월한슈 정즈로다/ 완보호여 문
의들어 /현판을 볼작시면/ 지숙노가 동편이오/암서현이 서편이르/ 오가산이
당호디고/청낭정사 밋긔거러/ 동우도 정쇄하고/당실이 광명하다/ 즈연이 정
금위좌/ 정신을 슈렘하고/ 도산작영 청낭귀를/ 귀귀히 외운후의/ 요금을 벗겨
안아/ 티고현 혼곡조의/ 청산은 아아하고 녹슈는 양양이라/ 산도절노 수도절
노 산수중간 나도절노/ 비린이 사로지고/ 금회가 쇠락하다/ 옥계금강 도타흔
들/ 이런경사 쏘잇는가/ 저기는 선선굴퓷/여기는 도학안원/ 방화슈류정 명디
오/ 제월광풍 주렘게로/ 무우춘풍 증점이라/ 의미가 무궁흔쥬/ 도덕이 높하스
라/ 빅운하 높흔곳의/ 유탕이 반반하다/ 오홉다 우리선쥬/ 금셔십년 흐시커다
/경회는 머리시나 /풍운이 식롭거라/ 거연흔 천석상의/ 방황하고 못가올다/
빅세하 후싱들이 /장구를 믹읍는 듯/ 닌아니 참감하며/ 뉘아니 흥기하리⁴⁴⁾

<청양산슈가>에서도 청량정사는 선조를 기억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량정사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어 깨끗하고 광명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된다. 특히 여기서는 선조의 학문과 아울러 거문고와 노래를 통한 풍류와 흥취가 강조되어 있다. 선조의 덕과 흥은 후손에게 이어질 것이며 이를 생각하는 화자 또한 감회가 새롭고 유람의 분위기는 들뜬다.

이렇게 볼 때 청량산은 양반들의 유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퇴계선생을 흠모하고 상징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가사작품에서는 특히 청량정사가 대

44) <청양산슈가>



<청량정사>

표적인 여정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량정사는 원래 그것이 가진 학문적 성소로서의 장소라기보다는 위대한 가문의 존재와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확인과 고민의 모습은 또 다른 순례자인 김생굴과 김생암터, 총명수 등의 역사적 인물과 연관된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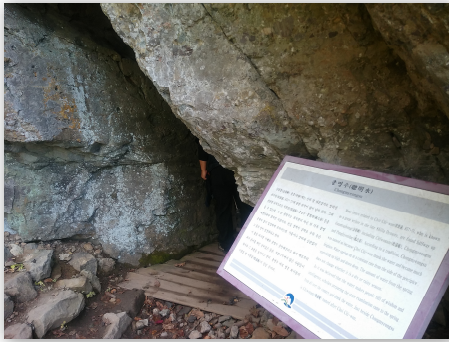
정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김생굴은 김생의 글씨수련과 관련한 대표적인 유적이다. 권호문의 「유청량산록」에 따르면 김생이 청량산과 인접한 마을인 재산(才山)에서 출생하여 경일봉 아래 있는 암굴에 은거하면서 글씨를 연마하여 명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⁵⁾ 뿐만 아니라 김생의 글공부와 관련한 이야기는 글씨와 길쌈을 겨루었다는 전설로도 전승되고 있어 청량산에서 김생굴은 중요한 역사적 순례지이다. 총명수는 암벽 사이에 맑은 샘이 솟아 나오는데 돌 위에 가득 고여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최고운이 이 물을 마시고 더욱 총명해져서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⁴⁶⁾ 총명수와 치원대(고운대) 모두 최치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사작품에서 이들은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어풍당을 올라가니 김생굴이 저계로다/석상의 쫓난폭포 배로무리 청청하고/스면의 나무엷흔 글시빚치 어리엿고/상랍은 격막하고 일흠만 머물었다/천만중 절벽우에 혼구비를 도라가니/하만흔 석혈중의 총명수가 이상하드/머릴

45) 권호문, 「유청량산록」, 경오년(1570년, 선조 3년) 11월 29일.

46) 이세택 편, 이이순 중수, 『청량지』의 내용 참조, (청량산산박물관, 『청량산 역사와 문화를 담다』, 161면 재인용).

랄 구푸리고 갈흔입에 먹어보니/정신이 썩끗하고 총명이 더욱있다/그엿히 풍
혈되는 바람소리 절로느니/심신이 서느릿코 비린이 스라진다/이전봇혀 이날
써지 몇스람이 지늬던고/산천은 불변하고 세월만 달느스니/회포인난 스람드
런 눈무리 절노날식/소상강 아황녀영 아른곳은 못밧스리/안괴싱관 적송즈난
칙약호로 어디간고/쥬풍은 소슬하고 인간이 묘연하다⁴⁷⁾



〈충명수〉

공부에 대한 정진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인물은 청량산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가사작품에서 이 둘은 세월의 흐름과 존재에 대한 고민을 떠올리게 하는 곳으로 바뀐다. 김생굴은 다만 이름만 남아있는 적막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충명수는 정신을 깨

끗하게 하고 심신을 서늘하게 하는 제재로 변하였을 뿐 최치원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생굴과 충명수⁴⁸⁾는 풍혈대의 바람과 연결되면서 세월의 무색함을 느끼게 하면서, 사람들의 회포를 자극하는 대상으로 바뀐다. ‘회포인난 스람드런 눈무리 절노날식’라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양상은 <청양산슈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월이 광화하고/ 삼층무운 금탑봉은/ 억만년 도탈이라 /초은디 구경후후/
김생굴 츠즈가니 /주인은 적막하고/ 유허만 완연하다 /무단흔 빅일청전 /저비
가 어인비고/ 교룡이 물엿썰어/ 쥬옥이 분분하다/ 여산의 폭포런가 ⁴⁹⁾

47) <淸涼山유산록>

48) 앞서 살폈지만 치원대(고운대)는 충명수와 아주 가까이 있으나 가사작품 치원대(고운대)는 거의 언급되지 못한다.

49) <淸양산슈가>

‘김싱굴 찰조가니 주인은 적막하고 유허만 완연하다’를 상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깨닫고 시간 앞에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청량산이 순례의 대상이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재인식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량산이 퇴계선생의 산이자 양반사대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였듯이, 가사작품 향유자들에게도 청량산은 퇴계선생의 후손으로서 가문을 상상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전자의 경우 ‘청량산육육봉’이 그런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면 후자의 경우는 청량정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자부심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퇴계선생으로 상상되는 가문과 자신을 등치시킴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존재확인인 순례는 김생굴이나 총명수 같은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김생굴이나 총명수는 김생이나 최치원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하는 대신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인물들과의 시간적 거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그 장소에서 화자는 시간 앞에 무한할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양반사대부의 한시나 유산기에서 청량산은 퇴계선생의 산이자 학문을 닦는 선비들의 성소(聖所)였다. 이러한 성소로서의 청량산은 가사작품에서도 그 구심을 그대로 발휘한다. 최소한 청량산 유산의 동기에서는 그 구심이 충실히 반영된다. 그러나 여기서 퇴계선생은 가문의 선조로 치환되며 청량산의 의미와 청량산 유산체험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본 논문은 청량산 유산을 다룬 가사작품인 <청량산수가>, <청량산유산가>, <靑涼山유산록>을 통해 이러한 의미전환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기존 발표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작품의 현황을 다시 살피고,

유산체험의 양상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청양산수가>를 다시 살핍으로써 이들을 모두 여성이라는 젠더적 시각으로 조명할 수 없음을 밝혔고,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淸凉山유산녹>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청량산 유산의 동기와 여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청량산 유산의 동기를 통해 이들에게 청량산은 응당 한번은 올라야 할 당위의 공간임을 알았다. 여기서 청량산은 여행이나 관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즐거운 순례의 과정임을 밝혔다. 또한 청량산 유산의 주요 여정은 연대사(연대암)과 청량사, 응진전으로 대표되는 절, 청량정사, 어풍대, 총명수, 김생굴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공간, 그리고 청량산 육육봉으로 상징되는 산봉우리였다. 이들 여정은 양반사대부 유산기와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다소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향유자의 관심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사작품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청량산의 장소성과 유산체험의 의미를 살폈다. 이는 가사작품에서 청량산을 경험하는 방식이면서 또한 유산체험을 통해 새롭게 새긴 의미이기도 하다. 가사작품에서 청량산은 가문과 지역을 상상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청량산을 순례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 한편 청량산은 미지의 경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미지의 경물로서 청량산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인식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그래서 청량산 유산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청량산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고, 가사짓기를 통해 그 즐거움을 다시 만끽하게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청량산 유산체험을 담은 영남지역 기행 가사작품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유산기나 한시 등을 통해서만 조명되었던 청량산이라는 문화공간의 장소성 및 의미화에 새로운 보탬이 될 것이라 본다. 장소는 끊임없이 그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고 실천된

다. 청량산도 마찬가지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 형설출판사, 1986.
- 김기영, 「청량산의 시기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충청문화연구』 1,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6, 103~124면.
- 김종구, 「유산기에 나타난 독서와 유산의 상관성과 그 의미-지리산과 청량산 유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125~157면.
- 심승희 옮김·팀 크레스웰 지음,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그마프레스, 2012.
- 우웅순, 「淸凉山 遊山文學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변모 양상 : 周世鵬과 李滉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425~446면.
-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1집, 퇴계학연구원, 2017.6, 39~73면.
- 이정옥, 「내방가사 현장연구」, 역락, 2017.
- 장병관 외, 「청량산 유산기(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선비의 산 경관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 91~93면.
- 전병철, 「淸涼志를 통해 본 퇴계 이황과 청량산」, 『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315~316면.
- 정목주, 「淸凉山の 高山景行 이미지 形成動因과 그 원리-『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73~102면.
- 정치영, 『사대부, 산수여행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220~221면.
- 청량산박물관, 『청량산 역사와 문화를 담다』, 민속원, 2017.
- 최은숙, 「가야산 기행가사의 작품 양상과 표현방식」, 『온지논총』 41, 온지학회, 2014.10, 143~174면.
- 최은숙, 「退溪의 淸凉山詩에 나타난 遊山체험의 詩化 樣相과 意義」, 『동양고전연구』 56집, 동양고전학회, 2014.9. pp. 9~33.
- 최은숙, 「영남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존재 양상과 의미」, 『어문학』 122집, 2013.12, 499~526면.
- 최은숙, 「친정방문 관련 여성가사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 『동방학』 36

권, 동양고전연구소 2017, 239-263면.

최은주, 「조선후기 영남 선비들의 여행과 공간감성」, 『동양한문학연구』31집, 동양한문학회, 373~409면.

Abstract

Aspect and meaning of recreation at Cheong-ryang Mountain in Gasa

Choi, Eun-sook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 of meaning transformation in ancient travel poems that covered the experience of mountain recreation at Cheong-ryang Mountain such as <*Cheong-ryang san-su poem*>, <*Cheong-ryang Mountain recreation poem*>, <*Cheong-ryang Mountain recreation journal*>.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pertinent literature and re-illuminated the pattern and meaning of mountain recreation experience.

In ancient travel poems, Cheong-ryang Mountain was a destination of pilgrimage. In this light, going on a pilgrimage to Cheong-ryang Mountain was the process of examining one's existence and discovering the limitation of human beings. In the meantime, Cheong-ryang Mountain was also scenery in a mysterious land. Thus, experiencing Cheong-ryang Mountain as a landscape object of unknown land meant the wondrous process of meeting the new unknown land and expanding their awareness. To those who return from their mountain recreation at Cheong-ryang Mountain, this process led them to look back Cheong-ryang Mountain and re-relish the joy through writing ancient travel poems.

The above discussion not only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meaning of ancient travel poems that described the experience of mountain recreation at Cheong-ryang Mountain but also contributed to the interpretation of placeness and signification of the cultural space called Cheong-ryang Mountain, which used to be examined only in the light of travel journals or ancient Chinese poems by gentry class. Places form and practice new meanings without an end.

key words

Cheong-ryang Mountain, mountain recreation, placeness, cultural space, pilgrimage, *Cheong-yang san-su poem*, *Gasa*.